

“가계대출 증가세 하반기 다소 둔화”

시중 은행장들 ‘금융협의회’에서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영향”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경영합리화 노력 강화해야”

“자산건전성 대체로 양호 수익기반 약화 가능성 존재”

국내 시중 은행장들은 최근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하반기 이후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올 상반기 중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정부·감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그간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최근 중소기업의 업황부진 지속 등으로 기업대출의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합리화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내 은행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합리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장들은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외화유동성 등이 현재로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저금리 기조 장기화, 금융권 경쟁 심화 등으로 향후 수



스마트폰과 아날로그의 만남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을 찾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종이로 만든 공룡 장난감을 조종하고 있다.

익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한 비용절감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이주열 총재도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은행의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경제의 체질 강화가 중요하듯, 은행도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대외충격 등의 위기에 대비해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한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피터슨연구소(PIIE) 등이 공동 주최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 콘퍼런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연초 중국이 불안했고 미국 금리 정책이 불확실한 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도 국제금융·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지혜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대부분의 참석자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정책도 필요하지만 대외부채 관리,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통해 대외 건전성을 높이고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장들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운영리스크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이에 한은도 관련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전산보안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주택청약 2년이상 이자율 0.2%p ↓

내달부터 1.8%로... 2년 미만은 그대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청약 이자율도 내달부터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내달 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인하되면서 시중금리도 인하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달 5일 기준 정기예금 2~3년 금리는 1.34%다.

다만 시중금리를 고려해 2년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한다. 2년 미만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리가 적용된다. 2년 미만은 1.5%, 1년 미만은 1.0%, 1개월 내에는 0%로 그대로다.

새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다.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사항도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인만큼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뉴시스

KB국민은행 ‘공동영업권’ 체계 성과

종합서비스 체제 정립...1분기 방카슈랑스·펀드 판매 '2배 급증'

KB국민은행의 올 1분기 방카슈랑스와 펀드의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2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민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액은 6937억원, 펀드는 2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99.9%, 132.2% 증가한 수치다.

원화예금과 대출도 같은 기간에 205조원, 198조원으로 각각 5.6%, 5.0%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이에 한은도 관련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전산보안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KB국민은행의 올 1분기 방카슈랑스와 펀드의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2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민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액은 6937억원, 펀드는 2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99.9%, 132.2% 증가한 수치다.

원화예금과 대출도 같은 기간에 205조원, 198조원으로 각각 5.6%, 5.0%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이에 한은도 관련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전산보안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한편 은행장들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운영리스크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이에 한은도 관련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전산보안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ISA 1만원 이하 ‘깡통계좌’ 비중 77%→58%

3월말 대비 약 20% 줄어... 계좌당 평균 잔고는 106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지난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만원 이하 소액, 일명 ‘깡통계좌’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은행권과 증권사에서 개설된 ISA 계좌는 238만개로 총 가입금액은 2조 5229억원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을 통한 가입자

가 214만3000명(90%)으로 가장 많다. 증권사는 23만7000명(10%), 보험사는 1000명이다.

신탁형 계좌는 213만9000좌(89.9%), 일임형 계좌는 24만1000좌(10.1%)다. 가입금액은 은행에 1조8029억원(71.5%), 증권사에 7178억원(28.5%), 보험사 22억원 순으로 몰렸다.

신탁형 계좌에는 2조 2010억원(87.2%), 일임형에는 3219억원(12.8%)

씩이 담겼다.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당 평균 잔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함께 1만원 이하 소액 계좌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계좌당 평균 잔고는 106만원이다. 지난 3월말 55만원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만원 이하 계좌가 비중은 57.8%로 3월말 76.9% 대비 약 20% 줄었다. /뉴시스

특히 은행권의 깡통계좌 비중이 3월말 81.8%에서 4개월 만에 60.2%로 크게 떨어졌다.

은행권 평균 잔고는 ISA 출시 당일 26만원에서 7월15일 현재 84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ISA의 가장 큰 손은 6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별 평균 잔고는 60대가 250만원으로 가장 높고 50대(151만원), 40대(96만원), 20대(60만원), 30대(58만원)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 ISA 가입자 수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재산형성에 관심이 많은 40대(680만명)와 50대(627만명)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은행의 중소기업 ‘갑질’ 여전

17개사 평균 5건... 대출 시 담보·보증 요구 등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낡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17개사의 중소기업 담보 및 보증부 여신 취급실태 점검 결과 은행별 지적건수가 평균 5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3년간 검사에서 지적한 건수를 위한 재산형성에 관심이 많은 40대(680만명)와 50대(627만명)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담보로 운영하거나,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해 연대보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식이었다. 이들 사례는 은행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융원 점검에 앞서 은행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산입력 오류 등 단순 미비사항에서부터 담보범위 불명확 등 불공정 업무처리 사항에 이르기까지 총 6만3000여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뉴시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